

<이대봉전> 연구

— <양주봉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임 치 균*

I. 서 론

조선 후기에 집중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군의 영웅 소설은 그동안 꾸준히 학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¹⁾ 특히 70년대와 80년대의 연구는 대체로 영웅 소설을 유형화하고 또한 그 유형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데 치중하였다.²⁾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영웅 소설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시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개의 작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또한 가지고 있다. 사실 유형에 따른 연구에서는 각각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별 작품이 단지 그

* 흥익대 강사

- 1) 임치균, "유충열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침문당, 1990. 강상순, "영웅 소설의 형성과 변모 과정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90. 진경환, "유충열전의 통속성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3, 1993. 박일용, "유충열전의 서사 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8, 1993.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 1994.
- 2) 서대석, "군담 소설의 구성과 작가 의식", 「계명논총」, 7, 1972. 조동일, "영웅 소설 작품 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 산업사, 1977. 서대석, "군담소설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85. 임치균, "영웅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5.

유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소자료로 취급되고 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학들의 노력으로 영웅 소설 전반에 걸친 템색이 거의 끝났다면 이제는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유충열전” 연구에서 이미 개별 작품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요즈음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의 자세에서 특정한 한 작품을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는 유형을 떠나 개별 작품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품이 ‘영웅의 일대기’라고 하는 구조적 틀 속에서 어떠한 의미나 원리를 가지고 존재하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이대봉전>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대봉전>은 그간 학계에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작품이다. 필자의 과문 탓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이대봉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연구자가 설정한 어느 한 유형에 맞추어 <이대봉전>을 다룬 연구는 있었다.

우선, 김기동의 개괄적인 소개가 있다.³⁾ 여기서 김기동은 작품의 서지와 경개를 소개하고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웅 소설의 한 유형으로 <이대봉전>을 다룬 경우가 있다. 박일용은 영웅 소설의 한 유형으로 ‘유충열전 유형’을 설정하고 그 곳에서 <이대봉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으며,⁴⁾ 민찬은 여성 영웅 소설의 한 유형으로 <이대봉전> 계열을 설정한 후, 이 계열이 ‘여성 주도에 의한 남녀 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⁵⁾ 마지막으로, 고전 소설 전반에 나타난 중심 모티브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이대봉전>을 다룬 경우가 있다. 고전 소설의 혼사 장애 유형을 나누면서 ‘획득-양자 과업형’ 유형의 하나로 이대봉과 장애황의 혼사 장애를 들고 있는 이창현의 논의가 그것이다.⁶⁾

본고는 <이대봉전>의 실체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 김기동, ‘한국고전소설 연구’, 교학연구사, 1983, pp.351-353.

4) 박일용, “영웅 소설의 유형 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3.

5) 민찬, “여성 영웅 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6.

6) 이창현, “고전 소설의 혼사 장애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7.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작품의 실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작품의 경개를 간단히 소개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양주봉전>과 대비 고찰하여 두 작품 간의 관계를 밝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필자는 <양주봉전>이 <이대봉전>을 그대로 베끼면서 약간의 변화만을 준 '완벽한 모방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대봉전>의 작품 전개 원리에 대하여 살피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위하여 『고소설 판각본 전집』 2에 실려 있는 <이대봉전>을 중심 텍스트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회동서관에서 1916년에 발행한 구활자본 <이대봉전>을 보조 텍스트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구활자본을 활용하는 이유는 <양주봉전>이 구활자본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주봉전>은 한성 서관에서 1917년에 발행한 구활자본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작품 경개

다음은 판각본 <이대봉전>의 내용이다.

늦도록 자식이 없던 이익은 부처에게 시주한 후 부인이 鳳은 장화의 집으로 가고 鳳은 자신에게 날아 드는 꿈을 꾸고 대봉을 낳는다.

같은 때에 장화도 같은 꿈을 꾸고는 애황을 낳는다. 이에 두 집은 서로 천정 인연임을 내세워 정혼한다.

영웅 기상을 타고 태어난 대봉은 훌륭하게 자라는데, 아버지 이익이 간신 왕회를 탄핵하는 상소를 썼다가 오히려 왕회파인 진택열의 모함으로 이익과 대봉은 정배되고, 계족은 서인이 되는 화를 당한다. 이들이 유배갈 때, 왕회에게 매수된 사공들이 이익을 물에 던지자 대봉도 같이 뛰어 듈다.

한편 장학사 부부는 이익이 화를 당한 것을 보고는 병이 나 연이어 죽고, 줄지에 고아가 된 애황은 혼절하나 시비들이 구호하여 살린다. 그 후 애황의 정숙한 태도와 아름다움을 들은 왕회가 자신의 아들 왕석연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 애황의 친척 장준을 매수하자, 장준은 부인을 보내 설득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설득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자, 한 피를 생각하여 왕회와 의논한다.

서해 용왕의 명을 받은 한 용자가 물에 빠진 이익을 먼저 구해 한 섬에 내려 놓고, 또 한 용자는 대봉을 구하여 금화산 백운암으로 인도하고, 그곳 노승(시주 받은 스님임)이 대봉을 거두어 가르친다.

왕회가 밤에 몰래 애황을 납치하려고 사람을 보내자 다급한 애황은 시비 난향의 꾀를 따라 남북으로 고쳐 입고 도망가고, 난향은 애황 소저의 복색으로 변장하여 잡혀갔다가 결혼식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왕회의 무도함을 질책하자 왕회가 노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忠婢이니 죽일 수 없다는 주의의 만류로 돌려 보낸다. 도망간 애황은 꿈에 한 노인의 계시로 한 암자에 이르러, 비구의 도움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공부하다가 길을 떠나 해운이라는 이름으로 죄어사태에 머무는데, 그곳에는 과부이면서 한 딸을 데리고 하는 호부인이 살고 있었다.

대봉도 공력이 날로 커지고 학업도 크게 이루어졌다.

나라에서 과거를 시행하자 해운이 응시하여 장원 급제하고 천자의 총애를 받는데, 왕회가 장화에게는 아들이 없었음을 근가로 시비하나 천자가 듣지 않는다. 해운이 돌아 오자 호부인은 자신의 딸과 혼인을 이루려고 서두나 갑자기 천자가 해원을 불러 이루지 못한다. 이 때 남선우가 중원을 침략하자 왕회 일파가 해원을 추천하고, 해원도 받아 들여 출전하여 제압한 후, 도망가는 선우를 따라 계속 진압하겠다는 장계를 올리고 추격한다.

이러한 때를 틈타 북흉노가 중원을 침입하자 명나라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한편 피난을 가던 대봉의 모친은 난향을 만나고 어느 여승의 도움으로 피신한 후 삭발위승한다. 이대봉은 비로소 산에서 나오고 천자는 능주로 피난하였다가 왕회의 주청으로 항서를 쓰려고 한다. 이대봉이 산에서 나오는 길에 한나라 장수 이릉에게 월각 투고와 용인갑을 얻고 오추마를 얻으며 관운장에게 청룡도를 얻어 능주에 도착하여, 옥쇄를 목에 걸고 항서를 써서 나오는 천자를 보고 달려 나가 흉노를 제압한다. 이 일로 천자에게 신임을 얻은 대봉은 왕회를 옥에 가두고 흉노를 정벌하기 위하여 죄아 간다.

장해원은 선우와 남만 오국을 정벌한 후, 남해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위령제를 지내려고 꾀를 내어 자신이 전생에 여자였다는 꿈을 꾸었다며 여복을 입고 제사를 지낸다. 어떤 중들이 이 제사를 보고 슬퍼 운다고 하여 그들을 불러 들여 그들이 시어머니와 난향임을 알고 장미동 자신의 집으로 우선 보낸 후, 황성으로 향한다.

대봉은 흉노를 제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정처 없이 가더니 어느 한 섬에 이르렀자, 그곳에 내려 부친을 만나 함께 돌아 오던 중 자신들을 구해

준 용자가 나타나자 그들을 따라 용궁에 간다. 그 곳에서 대봉은 서해 용왕을 괴롭히는 남해 용왕을 물리친다. 용왕은 기뻐하여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곳에는 중국의 역대 유명인이 모두 참석하여 즐기다가 대봉에게 각각 선물을 주지만 대봉은 광주만 받고 돌아온다.

해원 돌아와 연왕에 봉해진다.

대봉 돌아와 초왕에 봉해진다.

천자가 두 사람을 부마로 삼으려고 하는데, 연왕은 초왕 부자가 대봉 부자인 것을 알고 여자임을 밝힌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하고 왕회와 진택열은 유배를 보낸다. 대봉은 두 공주와 최소저를 부인으로, 난향을 첨으로 맞는다.

이 때 남선우와 북흉노가 재차 침공하여 임신 칠삭인 장애황은 출장하여 남선우를 제압한 후 아들을 순산하여 돌아온다.

대봉은 북흉노를 제압하고 돌아오니 천자가 아들 이름을 출전이라고 지어 준다.

대대로 잘 살았다.

III. <양주봉전>과의 대비

<양주봉전>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작품이다. 선학들이 영웅 소설의 유형을 나누고 유형에 따른 작품 하나 하나를 들어 논증할 때에도 이 작품은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있다. 선학들은 출간 횟수 등을 토대로 하여 <양주봉전>이 영웅 소설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김기동이 개괄적인 소개를 한 것⁷⁾과 민찬이 여성 영웅 소설의 한 유형인 <이대봉전> 계열에서 다룬 것⁸⁾이 고작이다. 그런데 본고의 중심 과제는 <양주봉전>을 분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봉전>이 <양주봉전>과 가지고 있

7) 김기동, 전계서, pp.370-372.

8) 민찬, 전계 논문, pp.24-38.

는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다. 사실 <양주봉전>의 작품 분석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이대봉전>에 대한 작품 경개를 매우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그 이유는 <양주봉전>과의 대비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주봉전>은 <이대봉전>과 내용이 거의 같다. 내용은 물론 그 전개 순서에서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술까지도 거의 같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어떻게 같고 얼마나 다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본항에서는 대비 대상인 <양주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1. 일치하는 부분

<양주봉전>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 1) 양위가 시주하여 태동을 꾸고 주봉을 놓고 장민 역시 같은 꿈을 꾸고 장취향을 놓아 두 집이 천정 인연이라며 정혼한다.
- 2) 양위가 왕회를 탄핵하다가 정배를 가게 되는데, 매수된 사공들이 물에 빠뜨리고 주봉도 물에 뛰어 듈다.
- 3) 장민 부부는 이 일로 근심하다가 죽는다. 왕회가 장취향의 친척 장준을 매수하여 장취향을 납치하여 아들과 혼인시키려다가, 장취향의 시비 경낭의 피로 장취향은 남복을 입고 도망가고, 경낭은 장취향로 변장하여 잡혀가서는 왕회를 질책한다. 왕회는 그녀를 죽이려다가 忠婢이니 죽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 만류로 살려 돌려 보낸다. 장취향은 부친이 꿈에 계시하여 한 딸을 데리고 사는 호부인 집에 둑으며 공부한다.
- 4) 서해 용왕이 용자에게 명하여 양위를 구하게 하고, 주봉은 금병산 봉건암으로 인도하는데, 그곳 노승(시주 받은 스님임)이 거두어 가르친다.
- 5) 나라에서 과거 배설하자 이름을 창주라고 한 장취향이 과거 급제하고, 왕회는 장민에게 아들 없었음을 근거로 시비하나 천자가 듣지 않는다. 호부인은 딸과 혼인시키려다가 천자가 창주를 부르는 바람에 일단 무산된다.

- 6) 남만(후에 남선우로 나옴) 침입, 왕회파가 추천하여 장창주가 출전하여 물리치고 남만 평정하겠다며 죽어 간다.
- 7) 북흉노가 이 틈을 타서 중원 침입, 주봉이 산에서 내려 오고, 추봉의 모친 풍씨는 경낭을 만나 피난하다가 여승의 도움으로 삭발위승한다. 주봉은 한나라 장수 이통을 만나 투구와 갑주 등을 받고, 용총마를 얻으며, 관운장에게 청룡도를 얻어 금주로 피난한 천자를 구하러 간다. 왕회가 항복을 권하자 천자는 옥쇄를 목에 걸고 항서를 들어 나오는데, 주봉이 나타나 물리치고 흉노를 죽어가 정벌한 후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아버지를 만난다.
- 8) 장창주는 끝내 남만을 평정한다.
- 9) 돌아오던 주봉은 자신을 구해 준 용자의 인도로 서해 용궁으로 가서 작난을 일삼던 남소의 이무기를 없애준다. 용왕은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예물을 주나 광주만 가져온다.
- 10) 장창주는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왕회의 죄를 논하자 천자가 왕회 부자의 벼슬을 빼앗고 의금부에 넣는다. 장취향은 돌아오는 길에 시아 베지와 남편의 위령제를 지내다가, 술피 올던 여승을 만나 그들이 시어 머니와 경낭임을 알고 집으로 보낸 후 황성에 다다른다.
- 11) 돌아온 주봉이 왕회를 국문하자 장취향이 노기를 띠고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며 이야기하다가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된다.
- 12) 왕회를 법에 따라 처단하고, 천자는 주봉을 초왕에 제수하고 친히 장취향과의 결혼을 주선한다. 호부인의 딸인 서소저도 부인으로 맞는다.
- 13) 대대로 잘 살았다.

앞에서 이미 제시한 <이대봉전>의 내용과 비교할 때, <양주봉전>의 10)까지는 주인공의 이름과 지명만 다를 뿐, 내용 전개의 순서나 그 내용이 <이대봉전>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영웅 소설 유형에 속하는 많은 작품들이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단락에서 보이고 있는 디테일한 내용의 일치이다. 우선 일부 인물들의 이름이 같은 경우이다. 적대자인 왕회, 그의 아들 왕석연, 장취향의 친척인 장준, 호부인, 한나라 장수 이통, 관운장이 동일 인물이며 두 작품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세부 내용에서

임치하는 것이 있다. 대봉과 주봉의 부친이 왕희를 탄핵하였다가 정배되는 이유가 바로 진택열과 염세빈이라는 왕희의 무리가 상소의 무례함과 터무니 없음을 친자께 아뢰며 정배를 요청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같다. 뿐만 아니라 두 작품 공히 장취향과 결혼하려던 왕석연에 대해 '기남자'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장준이 장취향을 왕석연에게 시집 보내기 위하여 설득하는 순서도 같게 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장준이 먼저 부인을 보내 보고, 그 후에 자신이 가서 장취향을 설득한 후 끝내 실패하자 왕희와 상의하여 납치극을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해 용왕과 용자, 대봉과 주봉 부자의 관계 설정, 대봉과 주봉이 머물며 수학하는 장소와 그곳으로 가는 과정, 가족들의 이합 집산의 과정 따위가 같다. 이밖에 한나라 장수 이룡이 나타나기 전에 여자와 선비 귀신이 먼저 나타나 대봉과 주봉을 시험하는 것이라든지, 이룡이 나타나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같다. 대봉과 주봉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갑옷, 명마, 청통도를 얻는 과정 또한 같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작품은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차이가 나는 부분

물론 <이대봉전>과 <양주봉전>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 차이가 서두 부분과 결말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주요 중심 인물들의 이름이 다르며, 아버지의 신분이 다르다. <이대봉전>에서는 대봉과 애황의 부친이 모두 벼슬을 하고 있으며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나, <양주봉전>에서는 주봉과 장취향의 부친이 모두 왕희의 참소로 고향에 돌아와 은거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둘째, <이대봉전>에서는 장애황이 남북으로 집을 나와 먼저 여승에게 구원 받아 학업을 한 후 호부인 집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주봉전>에서는 장취향이 집을 나와 곧장 호부인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군담에서도 차이가 난다.

셋째, 단락 11) 이후는 두 작품이 매우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차이는 앞에서 이루어진 내용 소개에 미루겠다.

이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모색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대봉전>과 <양주봉전> 창작의 선후 문제이다. <이대봉전>은 방각본과 구활자본으로 존재하는 작품이며⁹⁾, <양주봉전>은 구활자본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이다.¹⁰⁾ 이미 서대석은 군담 소설의 출현 시기를 3기로 나누면서, 구활자본이 간행되기 이전에 널리 보급되어 읽힌 작품의 하나로 <이대봉전>을 들면서 이 작품이 2기에 출현한 작품으로, 구활자본으로만 존재하는 <양주봉전>을 제3기에 출현한 작품으로 보아¹¹⁾ <이대봉전>이 이론 시기에 출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대봉전>이 앞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또 있다. 두 작품이 구활자본으로 출현한 시기를 따져 보더라도 <이대봉전>은 1914년에 이미 발행되었으나, <양주봉전>은 1917년에야 비로소 발행된다.¹²⁾ 구활자본으로만 존재하면서, 출판이 늦은 것에서 우리는 <양주봉전>이 본래 있었던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앞의 논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누군가는 <이대봉전>을 그대로 모방하여 <양주봉전>을 만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두 작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제시한 둘째와 셋째의 차이점은 구활자본 <이대봉전>을 참고로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활자본 <이대봉전>은 방각본<이대봉전>과 내용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즉 구활자본 <이대봉전>은 방각본 <이대봉전>의 내용 중 바로 이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용을 축약하고 있다. 구활자본 <이대봉전>에서는 장애황이 호부인 집에 가기 전에 여승을 만나 수학하는 과정을 없앴으며, 또한 천자가 대봉과 애황을 공주

9) 조동일에 의하면 <이대봉전>은 방각본으로 1회, 구활자본으로 8회 출판되었다고 한다. 조동일, 전계서, p.286.

10) 이능우에 의하면 <양주봉전>은 구활자본으로 3종이 있다고 한다. 이능우, 「고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0, p.280.

11) 서대석, 전계서, pp.24-25.

12) 이능우, 전계서, pp.278-280.

와 맷어 주려는 것, 남선우가 북흉노가 재차 침입하여 대봉과 애황이 각각 출정하는 것, 남선우를 정벌하러 갔던 애황이 아들을 낳고 천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 내용 역시 없앴다. 그리하여 구활자본에서는 장애황이 호부인의 집에 머무는 과정, 장애황이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는 내용, 앞 내용에서 관계된 인물들이 맷는 혼인의 완성, 그리고 대봉과 애황이 왕회를 처벌하는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양주봉전>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가져 온 것이다.

군담의 내용 또한 외견상 차이가 있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더는 오늘 밤 삼경에 군수이 만을 거느리고 반운산을 넘어 옥진강에 빅 복호며 나난 명일 평명에 군수를 모라 문방에 나아가 군수진을 치면 회운이 필경 군수를 거나리고 석평관에 디진흘 거시니 석평관은 복터 험로요 우진강이 멀지 아니 혼지라 그더가 강가에 유진호았다가 물을 더이면 회운이 물을 괴호야 용당 동평관으로 가리라 흐고 좌장군 만터를 불너……¹³⁾

제장을 불너 월 명일의 군수를 읊겨 서현에 진을 치면 장취 반다시 군을 읊겨 동진을 치리니 동현 짜은 하 낫고 강쉬 머지 아니 혼니 명일 초흔의 군수를 보니여 강수를 막엇다가 터 노호면 명진 장풀이 괴화치 못하고 군수를 도로혀 남군을 지나 상님을 가리라 흐고 좌장군 남터를 불너……¹⁴⁾

여기서 이 두 서술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공을 쓴 후, 괴하는 명군을 매복하였다가 전멸시키려는 오랑캐의 전략을 드러 내고 있다. 인물과 지명만이 다소 다를 뿐이다.

또한 왕회를 처벌하는 것은 같지만 그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활자본 <이대봉전>은 방각본과 마찬가지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주봉전>에서는 법에 따라 처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처벌하였다는 사실의 공통성이다.

따라서 사실상 둘째와 셋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첫째의 차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버지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은 작품

13) <이대봉전>.

14) <양주봉전>.

전체 구조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주봉전>의 경우, 왕희의 참소로 고향에 내려 온 양위와 장민에게는 더 이상 정치적 위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대봉전>에서의 위기는 왕희와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두 작품은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두의 차이는, 중심 인물들의 이름을 달리한 것과 함께 두 작품을 전혀 다른 작품으로 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도적으로 다른 작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의 이름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두 작품의 중심 인물은 이름만 다를 뿐, 작품에서 등장하는 시기와 맡은 역할은 같다. 따라서 <양주봉전>과 <이대봉전>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그 역할에 맞추어 서로 바꾸어도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황과 장취향', '난향과 경낭'의 이름을 서로 바꾸어도 두 작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황이 장취향이고, 난향이 곧 경낭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름이 다르다고 하여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양주봉의 아버지가 벼슬에 나감으로 해서 두 작품의 처음에 보였던 아버지의 신분의 차이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양주봉의 아버지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대봉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벼슬에 올라 왕희를 탄핵하다가 유배를 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양주봉전>은 <이대봉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 인물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신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단지 <양주봉전>을 <이대봉전>과는 다른 작품으로 보이게 하려는 위장에 불과한 것이다. 필자는 <양주봉전>을 <이대봉전>의 또 다른 이본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대봉전>에 대한 작품 분석이 이루어지면, <양주봉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대봉전>은 구활자본으로 7회나 출간된 작품이다. 7회 출간은 <춘향전>이 32회, <사씨 남정기>와 <구운몽>이 8회 출간된 것을 제외하면 <유충열전>과 함께 가장 많은 횟수이다.¹⁵⁾ 이는 당시에 <이대봉전>이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구활자본은 상업

15) 조동일, 전계서, p.286 참고.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주봉전>이 탄생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왕이면 인기가 있었던 <이대봉전>을 모방하여 주인공의 이름과 약간의 내용을 바꾸어 새 작품으로 내놓아 판매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우리 연구자들도 작품 제명에 이끌이어 <양주봉전>이 <이대봉전>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작품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¹⁶⁾

아울러 영웅 소설이 갖는 내용의 유사성도 <양주봉전>이 나을 수 있는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영웅 소설의 여러 작품에는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조립된 작품일 수 있다는 말이 공감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비슷한 작품이 많다 보니, 어느 한 작품에서 인명이나 지명 따위를 고치고 나머지는 그 작품 내용 그대로 출간한 <양주봉전>과 같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양주봉전>은 조립된 작품이 아니라 베낀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IV. 작품 전개의 원리

<이대봉전>은 사실 두 명의 주인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이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영웅 소설에서 여자 주인공은 고난을 겪다가 남자에 의하여 구출되거나, 능력은 있으나 남자를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남자보다 높은 지위에서 남자를 압도하며 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¹⁷⁾ 특히 나라를 위협하는 전쟁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여 활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대봉전>에서

16) 민찬은 전제 논문에서 <이대봉전>, <양주봉전>, <이봉빈전>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이대봉전>과 <양주봉전>이 <이봉빈전>과 어떻게 다른가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대봉전>과 <양주봉전>이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는 <양주봉전>을 <이대봉전> 계열의 한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민찬, 전제 논문, pp. 30-31.

17) 임치균, “영웅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5.

는 두 주인공이 마지막에 결연하기 전까지 따로 활약하며, 결연한 후에도 나라에 위기가 닥치자 따로 전장에 나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작가는 항상 두 주인공을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전개해 나가야만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독특한 전개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작품의 전개를 살펴보자.

1) 이대봉의 탄생

1') 장애황의 탄생

2) 이대봉 부자의 위기와 물에 빠짐

2') 장애황 부모의 기세와 왕희의 청혼

3) 용자에 의한 이대봉 부자의 구출과 백운암에서 수학

3') 장애황의 도망과 수학, 그리고 호부인 집에서의 기거

4) 나라에서 설파하여 장애랑 장원

5) 남선우 역모, 장애랑 출전하여 제압

5') 북흉노 침입, 이대봉 나타나 제압

6) 장애황이 끝까지 평정하고 난향과 시어머니를 만나서 환경

6') 이대봉이 끝까지 평정한 후, 아버지를 만나고 용왕의 일을 해결한 후 환경

7) 애황이 연왕에 봉해짐.

7') 이대봉은 초왕에 봉해짐.

8) 애황 신분을 밝히고 이대봉과 혼인한다. 왕희는 유배간다.

9) 남선우가 재차 침공하여 장애황이 출전하여 정벌한다.

9') 북흉노가 재차 침공하여 이대봉이 출전하여 정벌한다.

10) 자손을 많이 두고 잘 살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주인공이 같은 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주인공의 삶은 '탄생-위기, 해결, 수학-전쟁에서의 활약-왕위의 제수-혼인-재차 전쟁에서의 활약-행복한 결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완전 분리(부모, 정혼자와의 분리)-부분 재회(장애황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이대봉은 아버지를 만남)-완전 재회(분리되었던 무든 가족을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같은 삶을 산 두 주인공 가운데 어느 한 주인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작가는 한 주인공의 탄생을 서술한 후 다른 주인공의 탄생을 서술하고, 한 주인공의 위기와 해결과 수학을 서술한 후 다른 주인공의 그 때까지만을 서술하고 있다. 즉 한 주인공에 대하여 일정 부분 까지 서술한 후, 다른 주인공에 대하여도 그 부분까지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상 이것을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라고 명명하겠다. 이러한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는 어느 한 주인공에 대한 관심의 집중을 막아 주면서 두 주인공이 독자에게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한 주인공 생애의 어느 시기까지를 읽은 후, 또 다른 주인공의 그때까지를 읽게 함으로써 두 주인공의 생애나 사건의 전개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기, 해결, 수학 단계까지는 남성 주인공을 우선하여 서술하다가 4)를 기점으로 하여 활약 단계에서부터는 여성 주인공을 우선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작가가 여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4)이후에도 작가는 이대봉의 행적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대봉이 항복하려는 천자를 떨며 단기로 구출하는 내용과 용궁에서 활약한 내용은 극적인 재미를 더하면서 아울러 이대봉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남성 주인공에 대한 묘사가 더욱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변환과 작가의 여성 인식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환은 작가의 치밀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미 작가는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의 원리를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 3)까지 남성-여성의 순으로 작품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4)의 과거이다. 산 속에 있는 이대봉은 정배되어야 할 죄인이므로 과거에 용시 할 수가 없다. 반면 남복을 입고 호부인의 집에 거처하던 장애황은 과거 용시에 장애가 없다. 이에 장애황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천자의 인정을 받으며 벼슬에 나아 간다. 여기서 작가는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여성-남성의 순으로 바꾼다. 그러나 이러한 바꿈은 작품

전체로 볼 때, 매우 치밀한 것으로 보인다. 서술의 순서를 여성-남성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북흉노의 침입 때는 천자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여성 영웅인 장애황이 이미 남선우를 정벌하러 가고 없기 때문이다. 천자가 “이제 명나라에 장수가 없는데, 장원수도 없으니 누가 나를 구하리오”라며 탄식하는 지경이 된다. 이 때 이대봉이 극적으로 나타나 천자를 구한다. 이대봉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이대봉은 인정을 받고 큰 공을 세워 초왕에 제수된다. 이것은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 원리’ 속에서 서술의 순서를 여성-남성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순서는 이후 작품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9) 역시 여성-남성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V. 결 론

이상의 연구는 필자가 하고 있는 영웅 소설 유형에 속하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대봉전>을 대상으로 하여 <양주봉전>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겠다.

첫째, <양주봉전>은 <이대봉전>과 그 내용이나 내용 전개의 순서가 같다. 또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같다.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중심 인물의 이름과 서두 부분에서 설정한 부친의 신분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두 작품의 중심 인물은 그 이름만 다를 뿐, 각각 작품에 등장하는 시기나 작품에서의 역할은 같아서 중심 인물의 이름을 서로 바꾸어도 두 작품의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양주봉전>에서는 부친 신분이 다르게 설정되었으나, 곧 다시 벼슬에 나가 왕회를 탄핵하다가 유배를 가고 말아 <이대봉전>의 경우와 같아진다. 따라서 이것 역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대봉전>은 판각본으로도 존재하며 구활자본으로는 7회나 출간된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 반면 <양주봉전>은 구활자본

으로만 존재한다. 시기적으로 <이대봉전>이 먼저 출현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작품이면서 이상과 같은 사소한 차이가 생긴 것은 당시에 인기있었던 <이대봉전>을 그대로 배껴 <양주봉전>을 만들고는 마치 다른 새로운 작품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대봉전>은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 원리'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대봉전>에는 이대봉과 장애황이라는 두 주인공이 있다. 작품에서 이 두 주인공은 '탄생-위기, 해결, 수학-전쟁에서의 활약-왕위의 제수-혼인-재차 전쟁에서의 활약-행복한 결말'이라는 삶의 과정을 갖는다. 작가는 이 두 주인공의 삶의 궤적을 따라 작품을 전개하면서 독특한 특성을 보여 준다. 그것은 바로 삶의 한 단계에 따라 남성 주인공에 대해 서술한 후 여성 주인공을 서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생'의 단계에서는 두 주인공의 탄생에 관해서만 서술하고, '위기, 해결, 수학'의 단계에서는 두 주인공의 그것까지만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위기, 해결, 수학 단계까지는 남성 주인공을 우선하여 서술하다가 과거(科擧)를 기점으로 하여 활약 단계에서부터는 여성 주인공을 우선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순서의 변환은 작가의 치밀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작가는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의 원리에 따라 작품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이다. 이대봉은 정배되어야 할 죄인이므로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다. 반면 남장의 장애황은 과거 응시에 장애가 없다. 이에 장애황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 간다. 여기서 작가는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여성-남성의 순으로 바꾼 것이다. 서술의 순서를 여성-남성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복흥노의 침입 때 이대봉이 극적으로 나타나 천자를 구할 수 있었다. 이대봉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이대봉은 인정을 받고 큰 공을 세워 초왕에 제수된다. 이것은 '순서에 따른 단계적 전개 원리' 속에서 서술의 순서를 여성-남성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참고 문헌

- <양주봉전>, 한성서관, 1917.
- <이대봉전>, 화동서관, 1916.
- <이대봉전>, 「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인문과학연구소, 1973.
- 강상순, “영웅 소설의 형성과 변모 과정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90.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 민 찬, “여성 영웅 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6.
- 박일용, “영웅 소설의 유형 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3.
- _____, “유충열전의 서사 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8, 1993.
- _____,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 1994.
- 서대석, “군담 소설의 구성과 작가 의식”, 『계명논총』 7, 1972.
- 서대석, 『군담 소설 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85.
- 이능우, 『고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0.
- 이창현, “고전 소설의 혼사 장애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7.
- 임치균, “영웅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85.
- _____, “유충열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조동일, “영웅 소설 작품 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 산업사, 1977.
- 진경환, “유충열전의 통속성 재론”, 『민족문화사연구』 3, 1993.